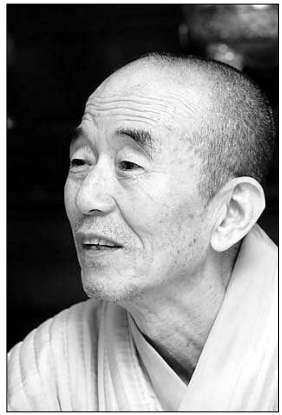


종성 스님이 남긴 참사람으로 사는 법

“화두공부란 오직 간절한 마음과 진실한 뜻을 세워 ‘이 공부 이 사업을 성취하지 못하면 살아도 참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굳은 각오로 한결같은 공부를 이루어 대오를 성취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입적한 종성 스님(前 임제선원 조실·사진의 법문집 <마음 공부의 바른 길>이 나왔다.

“수행은 누구라도 주어진 여건에서 깨달음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닦으면서 바르게 사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전한 종성 스님은 1930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 원광대에서 불교학을 전공했다. 68년 37살의 늦은 나이에 수행의 길에 들어선 스님은 92년 서운 스님으로부터 “부처님의 정법을 제신장실(제산은 종성 스님의 법회에 부촉하노라)”는 전법계를 받았다. 90년대 초부터 서울 봉선동 관악산 기슭에 임제선원을 열어 수행과 재가 불자들의 선수행 지도에 전념해 왔다. 특히 스님의 지도 아래 ‘법조인 불자회’가 창립돼 15년 동안 이어져오고 있다.



책에는 ‘돈오돈수와 돈오점수의 변’ 임제진인의 자각을 위한 실참의 정묘 등 스님의 법문과 백양사 주지 명공 스님,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 영산대 총장 부구욱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박기동 부장판사 등 후학들이 쓴 추모사가 함께 담겨 있다.

특히 스님은 법문에서 참사람, 즉 ‘무위진인(無位眞人)’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위진인으로 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화두를 참구하는 것”이라고 말한 스님은 ‘임제진인의 자각을 위한 실참의 정묘’에서 그 올바른 공부법을 제시한다.

종성 스님의 제자인 법현 스님은 “이 책은 자기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광명의 본래 마음을 찾는 바른 길을 알려주는 법문을 모은 것”이라며 “스님의 법문을 통해 누구나 자기의 마음을 밝히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마음 공부의 바른 길
종성 스님 지음
임제선원 | 1만원

생활에 쏙쏙 스며드는 부처님 말씀

부처님 가르침은 2600년 전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오늘’의 가르침으로도 여전히 유효하다. 테러와 전쟁, 연쇄살인과 자살, 비만 등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을 위한 붓다의 가르침>을 펴낸 안양규 교수(동국대)는 “21세기기를 사는 현대인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전제를 넘어 “현대인이 반드시 알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지침서”라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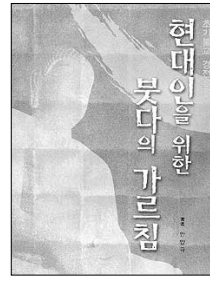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간의 본질에 집중되어 있다. 현상은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인간의 본질은 과거나 현재나 변함이 없다. 인간의 고통과 그 원인을 깊이 다루는 부처님 가르침은 모든 인류에게 유효하고 유일한 것이다.”

안 교수 등은 예시를 살펴보자.

초등학교생조차 서너 개의 학원을 전전하며 ‘정신없이 바쁘다’고 불평하고, 휴대폰과 인터넷을 통해 몇 초 만에 정보를 검색하는 현대인들의 마음은 예전보다 더 조급해졌다. 제각기 어떤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정작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는지는 잊고 있는 것이다. 안 교수는 나무 열매 떨어지는 소리에 놀라 달아나는 토끼를 보고 숲 속의 모든 동물이 무자정 함께 달려간다는 <자타카>의 우화를 들려, 자신의 삶을 관조하는 여유를 가져볼 것을 권한다. 또한 사회문제도 떠오른 ‘비만’에 대해

서는 “사람은 마땅히 유념해야 하나니 먹을 때마다 적게 먹을 줄 알아야 한다. 그로 인해 식탐의 고통 짐집 적어지리니 적게 먹고 소화시켜 목숨 보전하라”는 부처님의 계승을 해답으로 제시한다.

2,600년 전의 언어로 이루어진 부처님 가르침을 현대인에게 가장 잘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현대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현대인에게 익숙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무리 고귀한 가르침이라 하더라도 자기와 무관한 것이라면 시선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안 교수는 <자타카>와 <아함경> <대장엄론경> 등의 경전에서 현대인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구절을 뽑아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현대인을 위한
붓다의 가르침
안양규 지음
여시아문 | 9천원

정신없이 바쁜 현대인들에게 제시하는 생활속 실천 지침서

1부 ‘붓다란 어떤 분인가’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과 그 가르침을 보여주는 경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처님의 탄생과 수행, 하루일과, 전법, 입멸 전후의 상황 등을 소개하며 부처님이 자신의 생애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했는지를 보여준다. 2부 ‘붓다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자세’는 불교를 공부하는 마음 자세를, 3부 ‘붓다의 가르침’과 4부 ‘현대 사회에 있어 붓다의 가르침’은 불교의 교리가 현대사회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를 제시하고 있다.

5부 ‘마음다스리기’는 앞서 제시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마음과 본성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경전을 모았다. “수시로 마음을 단속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붕에 난 구멍은 기술자를 불러 고칠 수 있지만, 마음에 난 구멍은 자신만이 고칠 수 있다. 마음 단속은 힘들지만 일단 해 두면 비가 새지 않는 집과 같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 책은 2001년 펴낸 <붓다의 비유설법>과 지난해 본지에 연재한 ‘경전이야기’를 수정 보완해 엮은 것으로, 안 교수는 “천천히 읽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울삼아 자신의 허물을 보고 고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news.com

보르헤스는 왜 불교에 심취했나



현대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 작가로 추앙받는 보르헤스 그는 불교에서 자신의 작품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사상을 찾았다. 사진제공=송

<보르헤스의 불교강의>(여시아문, 1998)를 펴낸 문학평론가 김홍근씨가 중남미 문학의 최고봉으로 평가받는 아르헨티나 작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1899~1986)의 삶과 문학을 정리한 <보르헤스 문학전기>를 펴냈다. 지은이가 2001년부터 2004년 봄까지 <현대시학>에 연재했던 ‘보르헤스의 문학전기’를 다듬어 묶은 이 책은 미국 예일대학 로드리게스 모네갈 교수의 보르헤스 전기물 때대로 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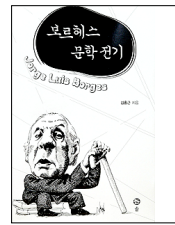
현대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 작가로 추앙받는 보르헤스지만, 일반 독자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더군다나 그가 젊은 시절부터 불교에 심취해 스페인과 중남미 독자들을 위한 불교 입문서를 집필했다는 것도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지은이는 책에서 보르헤스가 그려내는 문학세계를 조망하는 한편,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불교적 세계관을 쉽고 평이한 문체로 설명한다.

‘시간’의 문제에 천착했던 보르헤스는 불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시간관의 상이함’에 있다고 파악한다.

“예수의 삶과 죽음은 일회적이고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붓다의 삶과 가르침은 역사적인 주기 때마다 반복되며, 고타마는 과거에서 미래로 끝없이 연결되는 거대한 흐름의 한 고리의 역할을 다 하였다.”

또한 보르헤스는 고향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학 강연에서 “불교는 나에게 있어 구원의 길이었다”고 고백할 만큼 ‘시간’과 ‘깨달음’ ‘자아’ ‘윤회설’ 등 불교의 가르침에서 자신의 작품세계를 구성하는 핵심적 정신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

지은이는 서문에서 “보르헤스에게 불교는 단순히 신비한 이방문화가 아니라 바로 ‘구원의 길’이었으며, 작품 속에 나타난 비유들을 통해 그가 불교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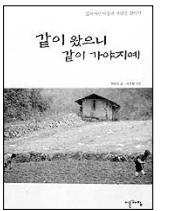
보르헤스 문학 전기
김홍근 지음 | 솔 | 1만8천원

새로운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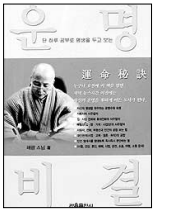
■ <새비꽃 편지>(권오본 글, 오병훈 그림, 도솔, 9천5백원)=결혼식 부케를 새비꽃으로 만들었을 만큼 들꽃에 대한 애정이 깊은 지은이가 보내는 들꽃편지. ‘맑고 향기롭게’ 소식지에 5년 동안 꽃이야기를 연재한 지은이는 토끼풀, 금평의다리, 달개비, 붓꽃 등의 들꽃들이 전하는 자연의 메시지를 들려준다. 한국식물연구회 오병훈 회장이 직접 그린 꽃 그림을 보았다.



■ <같이 왔으니 같이 가자>(박미경 글, 이규철 사진, 이문아침, 1만4천원)=수필가 박미경씨와 사진작가 이규철씨가 잊혀져 가는 우리 옛길과 마을,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이웃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글과 사진을 통해 고속도로가 생긴 후 외면 받고 있는 대관령과 너릿재, 새이령을 비롯해 북동마을, 유치마을 등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마을과 마을이 만나는 장터인 영천오일장과 구례오일장 풍경도 살갑게 다가온다.



■ <운명비결>(해광 스님 지음, 관음출판사, 1만2천9백원)=생활역할 연구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해광 스님(금강선원 주지)이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역학안내서를 펴냈다. 스님은 역의 원리와 운명수(유령 생명의 달과 일의 숫자를 더한 수를 9로 나눈 나머지 값), 부동산과 자동차, 전화번호 등에 담긴 공할 등을 소개한다.



금주의 베스트북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용서	달라이라마	오래된미래
2	선방가는 길	정찬주	열림원
3	禪 너는 누구나	현대불교신문	여시아문
4	유쾌하게 읽는 불교	고명석	동승동
5	영기천도	우물 스님	효승림
6	입보리행론	산티데바	하안연꽃
7	오체부지	한경혜	반디미디어
8	말씀 부처가 보이신 길	정화 스님	이문아침
9	보살예수	김희성	현암사
10	하버드에서 만난 부처	소운 스님	도솔

도서 안내: (02)737-0695

선수행 문답집,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억걸 무명의 체중을 막힘없이 시원하게 풀어줄 선수행에 대한 문답집!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 제자 대원 문해현 선사님이 일체종지를 통달한 안목으로 통쾌하게 답하였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불교의식(범음·범패·작법) 학인모집

사단법인 인해전통문화예술원 부설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 1학기 : 범패 · 소리과정 : 기본 불교의식,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 (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법.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 ◇ 2학기 : 작법 · 무용과정 : 나비춤, 사방요신, 다계작법, 도량계작법
바리춤 - 오잡바라, 관옥계바라, 천수바라, 사다리나바라
- ◇ 강사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 - 나호 범패 · 작법부 보유자 박일초스님 직강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 수록재 보유자

태평소 호적반 모집 (매주 1회 금요일 오후 3~5시) 강사 : 중요무형문화재 피리 장악 이수자 이거희

- ※ 특전 : 본교 졸업시 그 기능이 인정되면 무형문화재 수록재 및 범패 전수생으로 지정 받을 수 있음.
- ※ 본원은 초정파 교육원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6동 612-4호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굴다리 방향으로 5분 거리) ■ 전화 : (032) 529-6708 / 전 송 : (032) 529-6709
■ 홈페이지 : 사단법인 인해전통문화예술원 http://www.bumpae.org ■ 한글인터넷 : www.수록재 www.범패

사단법인 인해전통문화예술원 부설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 · 나비춤 보존회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 15호 인천 수록재 보존회